

필리핀 뉴까발란 교회 강요한,이은주(예은,예준) 선교사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그동안 저희 가족은 한국에 들어와 은혜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곳 필리핀 뉴까발란 교회는 질병으로 아픈 지체가 없이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뉴까발란 교회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 필리피노 차리나 전도사님이 사역을 이어받아 열심히 섬기며 동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 사역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메트로마닐라에서 현장 연구를 하며 다음세대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논문을 진행하면서 다음세대의 사역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올해 미국과 필리핀에서 현장 연구를 진행하며 다음세대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연구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기를 중보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사랑에 힘입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길 기대하며 저희 가족의 기도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 2022년 기도제목 ◎

1.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뉴까발란 교회가 더욱 기도가운데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청소년팀 셀모임에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3.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이은주 사모와 자녀들 건강한 생활이 되도록.
4. 필리핀과 미국에서 진행되는 태권도 선교사역 연구도 은혜가운데 잘 진행되도록.